

‘논공행상’ 한나라당 벌써부터 자리다툼

靑·총선·인수위 확보 치열

대선에 승리한 한나라당이 논공행상으로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청와대 인사, 내각, 18대 총선 공천 등을 놓고 당내외의 신경전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벌써부터 후보 선대위 참여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리 다툼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당 내부에서는 내년 공천 등을 놓고 벌써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 정부에 중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를 놓고 선대위 각 분야에 참여한 인사들이 서로 줄대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선대위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정권 출범 이후 기공예 진출 등을 놓고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초로 예정된 청와대 인사에

들기 위해 이 후보의 가신그룹과 정치권 인사, 캠프 인사들의 물밑 경쟁전도 펼쳐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내각 진입을 둘러싸고 당내 중진들의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은 이미 치열한 경쟁전이 시작된 상황이며 수도권과 영남권 공천을 둘러싼 알력으로 지도부가 경고를 보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

아울러 정권 교체에 이뤄짐에 따라 현직 고위공무원과 기공예 간부 등도 인사 민원을 제기하며 정치권 줄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새 정부에 참여하려는 당내외 인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10년만에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각종 인사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참패한 신당 盧 대통령에 화살

친노-비노 노선투쟁 비화

대선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인 대통합민주신당 내에서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선거 참패의 심리적 충격 속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던 신당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노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친노그룹 2선 후퇴론과도 맞물려 친노대 비노그룹간 치열한 노선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1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신당 최고위원회-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는 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정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라며 “첫째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 둘째는 정세성의 문제, 셋째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말했다. 친노성향의 한 중진위원은 “백악이 무효다. 이번 선거는 결국 노무현이 싫다는 것

이었다”며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도 문제였고 좌파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 최고위원도 “대선패배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노무현 정부였으며 현 정권에 대한 응징이었다”며 “그러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현 정부에 대한 증오가 원인이었다”며 “반성은 각자하는데 국민에게 진솔하게 전달이 안된다”고 지적했고, 또다른 참석자는 “정동영 후보가 참여정부 사과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도로 우리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종현 사무부총장은 “대선과정에서 창당 초심을 잃고 ‘도로 우리당’의 인상을 주지는 않았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지도부나 참여정부에 동참했던 분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아야 한다”고 2선후퇴를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설

‘지방’ 살리는 균형발전정책 지속돼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발전정책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참여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옛그제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권인수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는 마당에 구체적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지방분권 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선기간에도 TV연설 등을 통해 “현 정권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나뉘먹기를 잃고 ‘도로 우리당’의 인상을 주지는 않았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지도부나 참여정부에 동참했던 분들은 전면에 나서서 말아야 한다”고 2선후퇴를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으로 만들어 국내의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확실히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으로 밝혔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핵심 사업들이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가 대폭 풀리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선자의 구상에 따라 사업의 축소와 기간 연장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문화도시 등은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불가능하다. 당선자도 광주·전남 공명혁신도시가 조성되는 나주를 찾아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정권의 핵심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당선자는 지방·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하기 바란다.

내년 초 지역 체감경기 둔화된다는데...

광주지역 내년 1·4분기 소매유통업의 체감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유통업 경기는 체감경기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내년 초 지역경기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100개 소매유통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1·4분기 경기전망'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는 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1·4분기 이후 4분기만에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으로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 분기보다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23.4%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더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조사됐다.

실제로 내년 초 지역경기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최근 국제유가 및 곡물가 등 원재료값이 급등하고 여기에다 세계경기 둔화 전망까지 겹쳐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부동산 경기가 꺾여 얼어붙은 점도 내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내년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무엇보다 지방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뒀어야 한다. 지방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시급하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차기정부는 지방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 27~28일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파병연장·FTA 동의를 논란 예상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27~2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전날 이뤄진 접촉에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법사, 재경, 예결위 등을 열어 계류 안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 늦어도 2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시급한 안건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처리한 후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한 안건 88개를 비롯해 116개 안건을 우선 처리할 방침

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 예산안과 국군부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면서 “예산안은 28일 내로 반드시 통과토록 하겠다. 파병연장동의안도 28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이 예산안 처리 외에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무안공항 이용 지원 조례’ 등 20건 의결

전남도의회의는 21일 제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무안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와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20건의 조례를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정된 무안공항 재정 지원 조례는 무안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자에게 국제·국내 항공노선 신규 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와 공항 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고송자 의원(민노·비례)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안’은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및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홍보·치료 의뢰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의결된 20건 중에는 ‘전라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남여성프라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이 포함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고송자 의원(민노·비례)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안’은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및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홍보·치료 의뢰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의결된 20건 중에는 ‘전라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남여성프라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이 포함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 화 회 부 2200-626 여 령 회 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시 설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병원 나주 남평조합장 등 새 농협회장 후보 5명 압축

임기 4년의 새 농협중앙회장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다. 농협중앙회는 21일 신입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병원(나주 남평조합), 최원병(경주 안강), 최덕규(합천 가야), 신영철(경기 구리), 박준식(서울 관악) 등 5명이 기호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아직 뚜렷하게 유력 후보가 거론되는 시점은 아니지만, 일단 상대적으 대의원 수가 많은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출마한 김병원, 최원병 후보가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최원병 후보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동지상고 동문이라는 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남 화원 '조선산업단지' 기공식. 전남도와 대구그룹은 21일 해남군 화원면 대한조선 해남조선소에서 '조선산업단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채일병 국회의원, 허재호 대구그룹 회장 등 3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위경량기자 jrwi@kwangju.co.kr

민정수석 이호철씨 홍보수석 천호선씨 인사수석 정영애씨

청와대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수석들을 교체키로 하고 새 민정수석에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천호선 대변인, 인사수석에 정영애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내정했다.

이번에 퇴진하는 전혜철 민정수석은 경기도 안산, 윤승용 홍보수석은 전북 익산, 박남춘 인사수석은 인천에서 각각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은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천대변인이 겸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광에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추진

영광군에 330만여㎡(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영광군은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영광에 총 사업비 2천여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초 10억 원을 들여 '영광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를

330만여㎡ 규모--내년 용역 발주
IT·전자·생명공학 업체 등 입주
지방·고시한 뒤 민간 투자자를 모집, 2010년까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자동차 부품과 정보기술(IT), 식품, 전자, 전기, 정밀기계, 재료·소재, 생명공학, 의료가기 분야 등의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군은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3만 명이상의 인구 유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빛日만평

- 김중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길...

李 당선자 '4강 외교' 스타트

미·일 정상과 연쇄 전화통화 북핵해결 협력--내년 상반기 방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밤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전화를 받고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한미 동맹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이 당선자는 또 21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가진데 이어 클리브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과 님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는 등 본격적인 '4강(強) 외교'를 위한 정치작업에 착수했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한미관계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한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핵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반도를 원하고 있다. 이 당선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장차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취임 이후 두 가지 일을 하고 싶다.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라며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상호협력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이 당선자에게 취임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 당선자는 이를 즉각 수락했다. 이 당선자는 내년 2월 말 취임 전 특사를 미국에 파견,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문제 등 양국현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선자는 이어 21일 오전 후쿠다 일본 총리와 9분 동안 가진 첫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을 통한 일본의 북핵폐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일본과 강력히 협력해 나가겠다.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연합뉴스